

## 제 22 시의회 선거구

**John J. Ciafone (D)**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학교에 다녔으며 지금도 여기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 있는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 PS 85, JHS 141 그리고 롱아일랜드시티 고등학교. 저는 20 년간 변호사로 일해왔으며 스타인웨이 스트리트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해 슬하에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뉴욕대학교에 다녔고 세인트 존스 로스쿨에서 우수졸업을 했습니다. 뉴욕대학교에서는 유명한 교육감상을 받았고 세인트 존스 로스쿨에서는 메리 이건 판사 장학금을 수상했고 포럼의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저는 쿠오모 주지사의 인턴으로 봉사했으며 뉴욕시의회 법률 부서의 인턴으로 법 초안 작성과 제정을 도왔습니다. 프레드릭 슈미트 대법원 판사의 인턴으로도 일했으며 몇 번 압류 관련 소송에서 중재자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30 커뮤니티 학교 운영위원회에 출마해 가장 많은 득표로 두 번이나 선출되어 아스토리아, 롱아일랜드시티, 잭슨하이츠, 썬사이드, 우드사이드, 코로나 그리고 이스트 엘머스트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시 전체에서도 손꼽을 만한 거의 완벽한 출석률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새로운 공립학교를 짓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였고 지역 아이들을 위해 학교정원을 늘렸습니다. 또한 저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안전 관리요원, 카메라, 보안장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저렴한 주택도, 적합한 노인 주거시설도 없습니다. 노인센터, 도서관 그리고 공원은 거침없는 삭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들은 벌금, 수수료, 세금 및 여러 비용을 인상해 돈을 걷으려고 하는 시 정부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작은 주택 소유자들은 인상된 세금과 수도 및 하수도세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경찰관을 더 고용하고 우리 지역에 범죄율을 낮추기 위하여 검문 몸수색(Stop and Frisk)을 지지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형편없고 우리 지역 지하철역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프리-K 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친구, 가족 그리고 이웃들이 다른 도시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